

윤완철

본회 연구위원, 편집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산이 아닌개벼

국민개병제라 해서, 창칼을 잡을 수 있을만한 장정은 누구라도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한번은 국가의 흥망을 건 전쟁이 있어서 그야말로 전국민이 군대에 편입되었는데, 다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전투가 임박하여 국민군 병력 전체가 한 곳에 집결하였다. 병력의 규모가 거국적이다 보니 병법을 모르는 말단 장정들도 이번이 틀림없이 마지막 결전이다 하는 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장수의 지휘를 따라 행군하던 군대는 드디어 한 큰 산 밑에 집결하게 되었다. 장수는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했다. '반만년 역사를 꽃피울 때는 바로 지금이다. 후손에게 자랑스런 조국을 물려 줄 때도 오늘 이 날이다. 우리를 만성적으로 괴롭히던 모든 적은 이제 저 산에 있다. 내가 장수가 되면 주겠다고 공약한 모든 엄청난 영광과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 90%나 되는 장정이 함성을 질러 화답했다.

총공격이 개시되었다. 부상자가 속출했다. 적군에 맞아서가 아니라 주로

바위에 부딪고 나무에 걸려서였다. 와와 함성을 울리며 몰려 가노라니 자연 아군의 창칼에 스쳐 상채기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병사들은 웬만하면 까진 무릎을 절며 밀려서 밀려서 갔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 고지에 도달하여 깃발을 꽂을 수만 있다면. 누대를 괴롭혀 온 원수를 이제 이 기회에 소탕할 수만 있다면. 고통은 끝나고 길고 긴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을 믿고 잠깐의 고통을 잊은 채 숨이 찬 것도 모르고 걷고 뛰고 기어서 별떼처럼 산을 뒤덮어 올랐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진격은 계속되어 어느새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다. 눈에 익은 나무가 나타났고 오르느라 그렇게 애먹었던 바위를 도로 굴러 내려갔다. 보아 하니 어떻게 산정을 빙 돌아 오던 길로 다시 가고 있는 것이었다. 함성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무슨 영문이 있겠지하고 병사들은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처음 출발한 그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되었다. 적은 대체 다 어디 있고 우리는 원래 이 자리로 돌아 온 걸까? 장수는 산을 다시 올려다 보고 가쁜 숨을 가누더니 한마디 뚜박 했다. "아무래도 이 산이 아닌개벼."

병사들은 기가 막혀 엉겨주춤 선 채 서로 얼굴만 돌아 보았다. 장수라고 어찌 밋밋하지 않으랴, 술선수범하느라고 칼국수만 먹어 온 배가 언뜻 한 없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털썩 바위에 주저 앉았다. 그리고 지휘하던 장점을 맥없이 앞에 풀어 놓았다. "누구 댄 사람이 지휘해..." 그래서 즉석에서 민주적으로 장군을 새로 뽑기로 했다. 물론 옛날 옛날, 잊지도 않았던 옛날 이야기니까 가능하지만.

부장 중에 한 명이 썩 나서며 "내가 길을 잘 안다"고 했다. 다른 부장이 제지하며 "나는 좋은 전략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서며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고도 했다. 다툼은 점점 엉뚱해져서 "내가 장군할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에서 "내가 장군되면 우리 동네 출신 병사들이 좋아할 거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해지다가, 급기야는 "나는 여태까지 지휘란 건 해 본 적이 없으니 정말 깨끗하다"는 후보까지 나타났다.

결국 모두들 자기가 남못지 않게 길도 잘 알고 전략도 갖고 있고 이기게도 되어 있고 깨끗하기도 하며 좋은 동네 출신이라고 우겨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버렸다. 누가 나는 충성스럽다 하면 다들 나도 그렇다고 합창했다. 심지어 나는 고향집에 개가 있다 하면 다들 나도 그렇다 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우겨서 비기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입을 막았다. 누가 나는 눈이 좋다 하면 다른 사람은 요즘 장군은 눈이 문제가 아니라고 콧방귀를 끼었고, 누가 나는 사관학교 성적이 좋다 하면 나머지 모두는 목소리를 합쳐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외쳤다. 그러다 보니 말만 잘하면 되는 건줄로 알고 평소 직업적으로 말발깨나 세우던 몇 사람이 또 끼여들었다.

그래서 이제 유세는 다른 기준으로 전개되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조금 높은 바위에 올라서서 외친 것은 불공정 게임이니 나를 뽑아라 했고, 그것은 내가 키가 커서 그런 것일 뿐인데 음해하는 것이니 나를 뽑아라고 대응했다. 급기야는 감정싸움이 벌어져 자기들끼리 남 못보게 등뒤로 손들려 꼬집는가 하면, 넘어지는 척 하면서 발 밟고, 자빠지는 척 하면서 치대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주먹 싸움도 간간히 벌이는데, 얻어맞은 놈은 예외 없이 앞으로 뛰어나와 사람들에게 맞은 데를 내 보이며 "저런 놈들이니 나를 뽑아라"하고는 또 싸우러 들어간다. 그 외중에 몇사람이 떨어져나기도 했지만, 치고 받는 데 자신있는 친구가 또 몇 들어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애초에 뭘 뽑으려고 벌린 판인지는 이제 헌법만큼 가물가물하고, 말잘하고 독심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눈앞에 벌어진 일이니 확실한데, 왜 장군될 사람이 하필 말잘하고 독심 좋아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별반 없었다. 어차피 선거는 축제라나 뭐라나.

사람들은 질리고 지리하고 지저분해서 모두들 혀를 차고 서 있는데, 그중 누가 "옛날 죽은 어느 장군이 낫다"하니 어느새 귀도 밝아 좇어들고 한 후보가 싸우다가 뛰어나와 "내가 그 사람 답았다" 하는가 하는 순간 다른 이가 나뉘채고는 "내가 그 직계부하였다"한다. 정말 지락을 품고 덕과 용맹이 있어 나라를 위해 나선 사람도 저 후보 중에 있을지 모르건만

누군지 알 길이 없고, 만일 그렇다면 그는 고상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그 치사한 싸움판에 엉기어 통과의례를 치르고 있으니 가히 살신성인이요 옛날 한신이 깡패 바짓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고사를 본받는 대인(大忍)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둘러서서 구경이나 하는 우리들 병사가 정작 겁내는 것은 어느 누가 되든 또 새 장수 된 맛에 전군을 제집 닭떼 마냥 호기롭게 휘몰아서 그럴듯한 어느 산 밑에 가져다 놓고, "여러분 하기 나름이다. 자, 돌격!"했다가 헛손질에 빙 돌아 내려와서는 "접때 그 산이 맞는개벼"하는 것인데, 상상이 너무 잘 되는게 조짐이 심상치 않다. 적군이 어디 있는지 솔직히 모르니까 이번엔 찬찬히 찾아 보자는 사람도 없고,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병법이 아니니 일단 어디 어디를 수비하고 기다려 보자는 사람도 없이, 모두들 필승의 일계가 있으니 지금 당장 자기 따라 뛰자는 것이고 보면 아무리 병법을 모르는 병졸인들 어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기가 장군만 되면 저 험한 산을 소풍하듯 올라갈 것이라 하니 소처럼 순진한들 누가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

본디 우리나라 정치판 보는 법은 한 눈 감고 안보는 듯 하면서 가끔씩 흘깃 보고 혀 한번 끌끌차고 다음은 잊어버리는 것이니, 그래야 눈 안버리고 입 안 버리고 머리 안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정 정치 이야기하고 싶으면, 침일랑 튀는 일 없게, 입가리고 하품하듯, 입술새로 바람새듯, 빌빌실실 하는 것이니 그래야 뒤탈이 없고 먹살 잡힐 일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맞지도 않는 시대에 해동육룡 갖다대어 웬 '용'이니 이무기니 하는 언론이고,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적실한 터에 웬 반역적 냄새가 나는 '대권' 운운하는 앞뒤없는 세태이니, 혼자 잘난척 똑바로 입열고는 온 동네 어른 모욕죄로 몰매맞기 십상이고나.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이방원 작 하여가의 단전 전통을 이어 받아, '이 산이 아닌개벼 저 산이 맞는개벼'로 시조문학 율을 흠쳐, 헛소리하듯 한 곡 뽑아 더운 여름이나 퍼뜩 쫓아보려는 심사로구나. 88